

### 열린우리당 불자들의원들 5월에 모임 결성

윤원호 의원 등 20여명  
초파일 전후 창립 계획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불자들의원이 국회 정각회와는 별도로 불자모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창립 시기는 열린우리당 의장 선출과 4·30 보궐선거가 끝난 뒤 부처님오신날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성, 김영주, 이영호, 한병도, 정봉주 등 열린우리당 불자들의원과 불교에 관심을 보여온 제중호, 이근식 의원 등은 2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당 스님을 예방(사친)한 직후 열린우리당 불자들의원 모임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회장에 불심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진 윤원호 의원(문화관광위·국회운영위)을, 실무를 담당할 간사에 최재성 의원(교육위)을 내정했다.

열린우리당 불자들의원 모임에는 정각회에 가입해 있는 14명의 의원과 친불교적인 활동을 해 온 의원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과거 새천년민주당 시절 연동회 회장을 역임한 조성준 前의원도 4·30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의원의 김봉준 보좌관은 "현 정당구조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불자들의원들이 움직인다면 불교계를 위한 정책입안은 물론 불교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공불련 총무단회의

19~20일 유성서 개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세호)는 3월 19~20일 대전 유성 한국도지공무원수련원에서 총무단회의를 개최한다.

공불련 소속 2백50여기관에서 총무, 조직 담당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님오신날 행사, 해외 성지순례 등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단위불자회 활성화 방안, 공불련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02)739-1080 박봉영 기자

### 서울 법원청사 불자들의 교리공부현장

## “점심식사요? 공부가 더 맛있어요”



서울 법원청사 불교공부모임 회원들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불교 공부를 한다. 수업은 토론식 강의로 진행된다.

실새없이 돌아가는 바쁜 직장업무 속에서도 슬기롭게 신생활을 이어가는 직장 모임이 있다. 서울 법원청사 불교공부모임이 그들이다. 이들은 자발적인 신행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지만 알찬' 모임을 꾸려가고 있다. 하나를 배우면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직장생활의 활기를 얻고 있다는 법원청사 공부모임의 신행현장을 들여다보았다.

2월 28일 오후 12시 10분, 다른 직원들은 점심식사를 할 이 시간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내 가사 12조사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10여명의 직원들이 3평 남짓의 공간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이었다.

“홍성자 선생님은 고법 사무국으로 자리를 옮겼더니요?”  
“예, 아는 사람이 많아서 맘이 참 편하네요.”  
이들은 매일 한차례 열리는 서초반야회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회원과 불교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은 순수한 열정으로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 곳에 모여 교리공부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다. 김옥희 사무관(서울가정법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독속한 참석자들은 <예불이란 무엇인가(정각 스님 저)> 책을 폈다. 12시 30분부터 시작된 기초교리 공부는 회기애한 분위기가 아닌 사뭇 달랐다. 김옥희 '법사'가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보낸 학습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숙지한 내용을 편하게 발표한 뒤 교재를 정독했다. 그리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다음주 다시 토론하기로 했다. 공부한 한시간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늘 분위기를 돋구는 송창순(중앙지방법원)

### 10여명 월요일 점심시간마다 토론·교재읽기로 신심 배가

원씨는 불교공부를 시작한 이후 직장생활과 달리 또다른 보람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불교를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이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직장에서 툴툴대거나 반쪽짜리 직장생활이 아니라고요.” 이들은 모두 불교에 대해 아는 것 없는 초보불자들이지만 불교를 알고 싶은 욕구는 뒤지지 않는다. 모임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알고 싶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신행을 다지기 위함이다. 김옥희 사무관(서울가정법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단지 불교가 좋아서 법회에 참석하기는 하는데 아예 있어야죠. 법회시간동안 남몰래 하는대로 따라하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교에 관심은 많으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못하는 이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회원은 많으면서도 법회 참석자는 소수인 다른 직장불교회와 달리, 법원 공부모임은 15명 내외의 적은 인원만으로 운영된다. 매주 높은 참석률을 자랑한다. 도반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말연설 권영선(중앙지방법원) 사무관의 이야기에서 이유가 분명해진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도반들의 직장생활은 물론 가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서로 챙겨주고 같이 공부하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 틈이 없거든요.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 전화로 인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니, 안나올 수 없는 겁니다.”

법원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외부인으로는 유일하게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박수은 법무사(남해합동법무사무소)는 “도반들을 만날 기대감으로 월요일만 되면 설레네”며 속속된 웃음을 짓는다.

박봉영 기자 byperk@buddhapia.com

### 우리불자회는요 <글>

### 경찰청 불교회

경찰청 불교회는 1988년 창립된 이래 활발한 활동으로 경찰 및 직원들의 다양한 신생활운동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 모범이 되고 있어 회원들의 자부심이 강합니다. 매주 열리는 특별활동과 법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회는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불자가수 남강수 선생님의 지도로 찬불가를 배우고 있으며,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예강좌를 열



경찰청 불교회는 매주 서예와 찬불가를 배우는 것은 물론 정기법회를 여는 등 활발한 신생활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서예반 회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예를 하는 모습.

### 신행열기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법당 찬불가·서예·중국어 등 '자아발전' 원동력

어 정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기 서예반과 현재 교습을 받고 있는 2기생을 포함한 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예전시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시간에는 前 KBS 아나운서인 김남규 선생님의 지도로 중국어 강좌를 실시하여 경찰청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어반(반장 이경애)은 5월께 성지순례를 겸한 어학 실수를 중국으로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청 불교회는 18년동안 자체적인 운영을 통해 신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법당의 불전함 관리를 전 경승스님의 요구로 경승실에서 해오고 있는 점입니다.

경찰기관 불교회 가운데 경승실

박희영 총무(경북도청 2과)

## 제 54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삼천부처님이 계신 당 감로사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삼천배 참회기도를 제법 큰스님을 모시고 음력 2월 10일에 시작하여 삼천불 재일날인 음력 2월 14일에 회향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조복받아 지금까지 지음 모든 업장을 일시에 소멸하고 성불 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불기 2549년 음력 2월 10일 ~ 14일(양력 3월 19일 ~ 3월 23일) 4박 5일

- 법문큰스님: 지관(가산문화원 원장) 인환(동국대 교수) 정관(前 범어사 주지)
- 대성(범어사 주지) 세민(前 해인사 주지) 각성(화엄사 주지)
- 홍선(중앙승가대 교수) 금담(극락선원 원장) 법희(감로사 회주)
- 성우(파계사 주지) 철우(영산출원 원장) 지안(승가대학원 원장)
- 태원(중앙승가대 교수) 경성(중앙승가대 교수) 지운(前 송광사 강주)
- 혜충(감로사 주지)

- 삼천배유나: 철우 큰스님
- 인례사스님: 종인 경법 경원 경무 경계 경상 옥산 원담 설오 각목 영철 경중 경지 경적 경소 경진 경여 경중 화용 범어 법준 법진
- 동참금: 5만원(위패 한분 모시는데 1만원) \* 회향날 방생합니다.
- 지참물: 백미, 꽃, 과일 약간씩(주무실 분은 담요 한정)
- 계좌번호: 조흥은행 409-04-472968 \* 예금주: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주지 혜충 합장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 2동 33번지 전화 051)809-0926, 803-0188

## 직지불교대학 제 3기(대구 동구 지원) 신입생모집

깨끗한 공기와 자연 속의 직지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 내용

- 제 1강의 사찰 예배 및 특강 그리고 찬불 배우기
- 제 2강의 불교란 무엇인가?
- 제 3강의 합장예배 찬불가 배우기
- 제 4강의 일주문(一柱門)에서 절대적 하나의 세계 불이문(不二門)까지
- 제 5강의 부처님의 생애 및 찬불가 배우기
- 제 6강의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
- 제 7강의 근본교리 및 발우 공양 체험
- 제 8강의 영혼의 윤회와 인과법칙
- 제 9강의 대승보살도의 육바라밀
- 제 10강의 선 사상과 참선 체험

▶강사진: 혜창큰스님, 흥선스님(직지사강주), 도일스님(직지불교대학장), 덕선스님(동화사강사), 정인스님(직지사강사) 쉽고 재미있는 불교강의 및 생활법문.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습니다.

### 【교찰 김천 직지사 사찰순례 법회 일정】

- AM 9시 출발: 11시 직지사 도착(일주에서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 대웅전참배 → 녹원큰스님전견 → 점심공양 후 경내 박물관 견학 자유시간 1시간 후 → 대구로 출발

- ◆ 입학일시: 대구수성포교원 - 2005년 3월 17일 • 대구동구지원 - 2005년 3월 18일 오전 10시 (야간) 오후 7시
- ◆ 수강시간: 대구수성포교원 - 매주 목요일 • 대구동구지원 - 매주 금요일
- ◆ 입학금: 5만원(교재포함) ◆ 수강료: 1개월 2만원 ◆ 기간: 초급 5개월 과정
- ◆ 장소: 대구수성포교원 - 지산동 지산삼거리 옆 「양지산」 직지불교대학 황룡사 법당 • 대구 동구 지원 - 동호동 반야월 네거리 직지선원 법당 5층(반야월 지하철 3번입구)
- ◆ 특진: 1. 수료시 불명수여 2. 희망시 조계종 신도증 발급(사찰무료임집) (수시접수 합니다)
- ☎ 접수 및 문의: • 대구수성포교원 053)784-8620, 8619 • 대구동구지원 053)961-8620 \* 계좌이체: (농협) 718-02-165594 (예금주: 이현무)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직지불교대학 황룡사·대구수성포교원 직지선원·대구 동구 지원